

2012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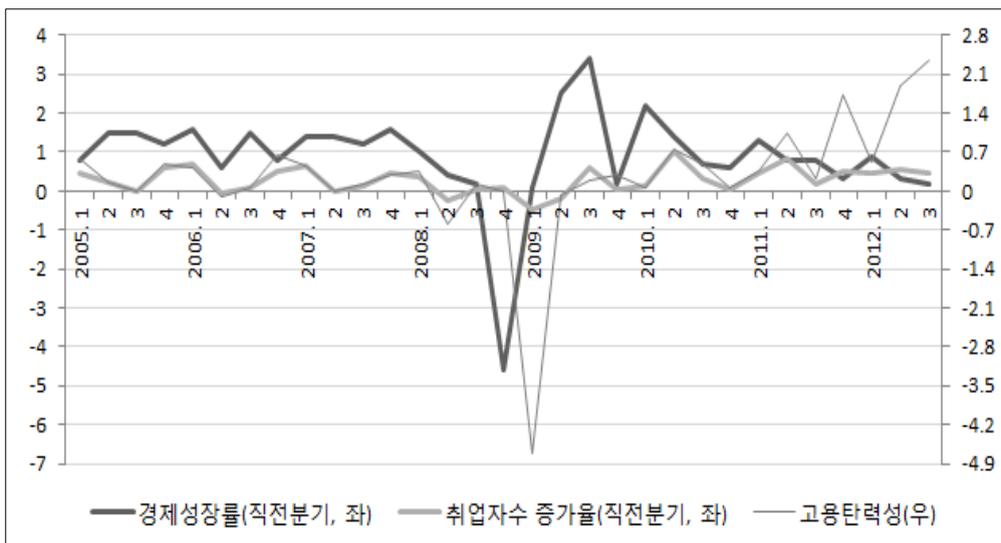
동향분석팀

I. 2012년 노동시장 개관

2012년 10월까지의 상황을 볼 때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해 과거와는 달리 매우 큰 고용탄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1년 이래 지속되어 왔다(그림 1 참조).

[그림 1] GDP 성장률, 취업자 수 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전분기대비, 계절조정계열)

(단위 : %)



주 : 고용탄력성=취업자수 증가율+경제성장률로 계산.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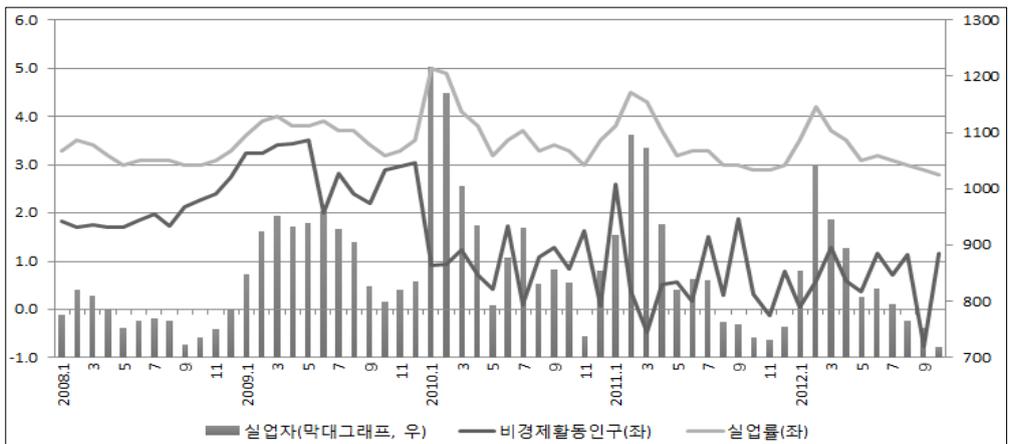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9,170	39,597	40,092	40,590	41,052	39,560	40,051	40,552	41,014	41,536
	(증가율)	(1.1)	(1.1)	(1.2)	(1.2)	(1.1)	(1.1)	(1.2)	(1.2)	(1.1)	(1.3)
	경제활동인구	24,216	24,347	24,394	24,748	25,099	24,356	24,404	24,760	25,099	25,522
	(증가율)	(1.0)	(0.5)	(0.2)	(1.5)	(1.4)	(0.6)	(0.2)	(1.5)	(1.4)	(1.7)
	취업자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3,587	23,503	23,815	24,222	24,683
	(증가율)	(1.2)	(0.6)	(-0.3)	(1.4)	(1.7)	(0.7)	(-0.4)	(1.3)	(1.7)	(1.9)
	(증가수)	(282)	(145)	(-72)	(323)	(415)	167	-83	312	407	461
	참가율	61.8	61.5	60.8	61.0	61.1	61.6	60.9	61.1	61.2	61.4
	(남성)	(74.0)	(73.5)	(73.1)	(73.0)	(73.1)	(73.6)	(73.1)	(73.1)	(73.2)	(73.4)
	(여성)	(50.2)	(50.0)	(49.2)	(49.5)	(49.7)	(50.1)	(49.3)	(49.6)	(49.7)	(50.0)
	고용률	59.8	59.5	58.6	58.7	59.1	59.6	58.7	58.7	59.1	59.4
	(남성)	(71.3)	(70.9)	(70.1)	(70.1)	(70.5)	(71.0)	(70.1)	(70.1)	(70.5)	(70.8)
	(여성)	(48.9)	(48.7)	(47.7)	(47.8)	(48.1)	(48.8)	(47.8)	(47.9)	(48.1)	(48.5)
	실업자	783	769	889	920	855	770	901	945	877	839
	실업률	3.2	3.2	3.6	3.7	3.4	3.2	3.7	3.8	3.5	3.3
	(남성)	(3.7)	(3.6)	(4.1)	(4.0)	(3.6)	(3.5)	(4.2)	(4.1)	(3.7)	(3.4)
	(여성)	(2.6)	(2.6)	(3.0)	(3.3)	(3.1)	(2.6)	(3.0)	(3.4)	(3.2)	(3.1)
	비경제활동	14,954	15,251	15,698	15,841	15,953	15,204	15,647	15,792	15,915	16,015
증가율	(1.2)	(2.0)	(2.9)	(0.9)	(0.7)	(1.9)	(2.9)	(0.9)	(0.8)	(0.6)	
15~ 64세	참가율	66.2	66.0	65.4	65.8	66.2	66.0	65.5	65.8	66.2	66.5
	(남성)	(77.6)	(77.3)	(76.9)	(77.1)	(77.4)	(77.3)	(76.9)	(77.1)	(77.4)	(77.7)
	(여성)	(54.8)	(54.7)	(53.9)	(54.5)	(54.9)	(54.8)	(54.0)	(54.5)	(54.9)	(55.2)
	고용률	63.9	63.8	62.9	63.3	63.8	63.8	62.9	63.3	63.8	64.3
	(남성)	(74.7)	(74.4)	(73.6)	(73.9)	(74.5)	(74.5)	(73.6)	(73.9)	(74.4)	(75.0)
	(여성)	(53.2)	(53.2)	(52.2)	(52.6)	(53.1)	(53.2)	(52.2)	(52.6)	(53.1)	(53.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데 비해 취업자 수는 1.9%가 증가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실업률도 3.3%로 전년동기보다 0.2%p 감소하여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표 1, 그림 2 참조).

II. 2012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2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상승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만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해 양적인 면에서는 좋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고 용 률	15~19세	6.6	5.9	5.4	6.1	6.8	6.7	6.1	5.4	6.1	6.9	7.0
	20~24세	48.0	45.5	44.6	44.3	43.5	48.1	45.9	44.6	44.3	43.5	44.7
	25~29세	68.4	68.5	67.5	68.2	69.7	68.4	68.5	67.4	68.2	69.7	69.6
	30~39세	72.9	72.9	71.3	72.0	72.2	72.7	72.9	71.2	71.9	72.1	72.7
	40~49세	78.3	78.4	77.7	77.8	78.4	78.2	78.3	77.7	77.8	78.3	78.4
	50~59세	69.7	70.6	70.3	70.9	71.6	69.6	70.6	70.3	70.9	71.5	72.2
	60세 이상	38.1	37.2	36.7	36.0	36.5	38.3	37.4	37.1	36.2	36.7	37.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층은 급증하는 인구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에서 인구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표 3>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는데, 인구증감효과는 20대와 30대에서는 취업자 감소의 요인으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대는 인구감소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증가해 고용률 개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15~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증감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 변동 크기가 인구변화를 제외한 취업자 수 변동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변화와 인구증감(각 연도 1~10월)

(단위: 천 명)

	2011년 취업자 수	2012년 취업자 수	인구증감 효과	인구증가 효과를 제외한 취업자 수 증가분
15~24세	1,389	1,481	19	73
25~29세	2,499	2,379	-115	-5
30~39세	5,782	5,752	-78	47
40~49세	6,605	6,620	14	1
50~59세	5,055	5,336	225	56
60세 이상	2,891	3,116	140	84
전 체	24,222	24,683	204	257

주: 인구증가 효과는 전년도 동기와 고용률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계산되는 취업자 수 증가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경제성장률 둔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인 3분기 고용률 추이를 보아도 25~29세, 40대에서 다소 하락하였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고용률 하락은 이 연령대 고졸 이하 남성 고용률이 64.2→58.9%로 떨어진 데에 주로 기인하였다.

〈표 4〉 연령계층별 각 연도 3분기 고용률 추이

(단위: %)

	2007년 3분기	2008년 3분기	2009년 3분기	2010년 3분기	2011년 3분기	2012년 3분기
15~19세	7.2	6.4	6.1	6.8	7.4	7.6
20~24세	48.0	45.7	46.3	44.8	43.9	45.3
25~29세	68.3	68.6	66.7	68.1	70.9	69.5
30~39세	72.8	72.5	71.1	72.1	71.8	73.2
40~49세	78.1	78.5	77.7	78.1	78.5	78.4
50~59세	70.6	71.0	70.8	71.4	71.7	72.4
60세 이상	39.5	38.7	38.9	38.2	38.3	39.5
전 체	60.2	59.9	59.1	59.3	59.5	6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은 최근의 고용률 흐름이 고용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조심스럽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2년 들어 임금근로자 수 증가가 둔화되어 있는데, 이 영향이 25~29세 3분기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5>와 <표 6>으로부터 추측하건대, 30대의 고용률 개선은 노동시장 둔화의 영향으로 사직이 빠르게 감소하는 플로우(flow) 둔화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 이렇게 본다면, 경기침체의 지속은 입직 흐름도 둔화시켜 30대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5〉 연령계층별 전직이 있는 2개월 미만 미취업자 수 연령대별 추이

(단위: 천 명)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년 3분기	202	130	222	230	162	148
2007년 3분기	158	121	193	213	147	150
2008년 3분기	170	117	208	208	168	130
2009년 3분기	186	164	224	241	214	190
2010년 3분기	205	147	220	244	212	194
2011년 3분기	206	123	209	224	236	230
2012년 3분기	207	113	156	197	212	1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연령계층별 근속 2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 연령대별 추이

(단위: 천 명)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년 3분기	362	290	576	694	448	276
2007년 3분기	333	277	536	714	521	311
2008년 3분기	300	266	524	683	498	302
2009년 3분기	353	295	536	724	583	410
2010년 3분기	328	296	480	664	609	353
2011년 3분기	336	261	421	617	573	360
2012년 3분기	333	195	373	575	624	37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0대는 국제금융위기 영향이 있었던 2009년 3분기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 증가뿐 아니라 고용률도 꾸준히 증가했다. 자녀가 여전히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소득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 인구증가가 취업통계에 단순히 반영되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퇴한 일부 50대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상의 원인을 반영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 새로운 진입을 한 것이라면 근속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겠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나 임금근로자 모두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해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 증가의 성격을 보여준다(표 7 참조). 이는 결국 50대 취업자 수 증가에서 노동공급측 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경기가 급랭하지 않는 한 50대 취업자 수는 이 연령대의 인구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직 있는 미취업자의 전직경과기간과 근속기간이 입이직 흐름을 대표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7〉 50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창업 후 유지기간 및 근속기간 분포

(단위: 천 명)

	50대 자영업자			50대 임금근로자		
	2011년 8월	2012년 8월	증가분	2011년 8월	2012년 8월	증가분
3개월 미만	28	22	-6	538	549	11
3~6개월 미만	34	39	5	254	257	3
6개월~1년 미만	59	56	-3	255	260	5
1~3년 미만	212	228	16	514	549	35
3~5년 미만	164	170	6	272	286	15
5~10년 미만	322	314	-8	341	346	5
10~20년 미만	473	499	27	362	402	40
20년 이상	407	429	22	523	593	70
전 체	1,697	1,757	60	3,058	3,241	1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인구변동도 중요하지만 경기변동과 정부정책, 자영업자 변동의 영향 또한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을 보면 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내수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2008년 취업자 증가폭이 음(-)이거나 매우 작았고,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집행된 2009년과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0년 통계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증가분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데에는 비임금 근로자 증가의 영향이 큰 것

〈표 8〉 60세 이상 임금·비임금 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증가분 합계
	전일제 근로자수	증가분	시간제 근로자수	증가분	비임금 근로자수	증가분	
2002년 8월	608	-	83	-	1,599	-	-
2003년 8월	589	-19	101	17	1,526	-72	-73
2004년 8월	626	37	130	29	1,555	29	95
2005년 8월	682	56	133	3	1,633	78	137
2006년 8월	709	28	176	43	1,699	66	137
2007년 8월	804	94	198	22	1,701	1	118
2008년 8월	791	-12	220	21	1,707	6	15
2009년 8월	926	135	279	59	1,640	-67	127
2010년 8월	911	-16	361	82	1,622	-18	49
2011년 8월	971	60	389	28	1,716	94	182
2012년 8월	982	11	461	72	1,825	109	1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으로 나타난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영업자 증가폭이 둔화된다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도 그 영향을 받아 2011년이나 2012년보다는 작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성 및 학력별로 나누어 고용률을 분석해 보았다(표 9 참조). 전문대졸 이상은 남성의 경우 15~24세, 30대, 50대에서 전년 동기 보다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고졸 이하는 남성의 경우 전년동기보다는 25~29세를 제외하면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30대,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전년동기보다 상승하였다.

〈표 9〉 학력별·연령별·성별 고용률 추이(각 연도 1~10월)

(단위 : %)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2007	2011	2012	2007	2011	2012
남성	15~24세	17.9	16.1	17.6	70.6	58.9	67.0
	25~29세	64.8	63.3	60.5	77.6	78.0	78.0
	30~39세	88.1	85.8	86.6	92.1	92.3	92.5
	40~49세	89.9	88.7	89.3	94.4	94.5	94.2
	50~59세	83.2	83.8	84.6	89.0	89.6	91.0
	60세 이상	52.4	50.6	51.4	41.8	42.5	42.0
	전 체	64.5	61.7	61.9	86.1	86.5	86.8
여성	15~24세	20.2	18.3	18.7	73.3	72.3	71.3
	25~29세	52.9	55.7	58.3	72.1	72.6	71.9
	30~39세	53.8	49.5	49.2	55.6	56.5	57.6
	40~49세	65.6	67.5	66.6	60.9	59.1	60.8
	50~59세	55.0	58.1	58.5	52.8	53.8	55.5
	60세 이상	29.0	27.0	28.3	23.0	21.4	22.6
	전 체	44.7	43.2	43.2	62.3	60.9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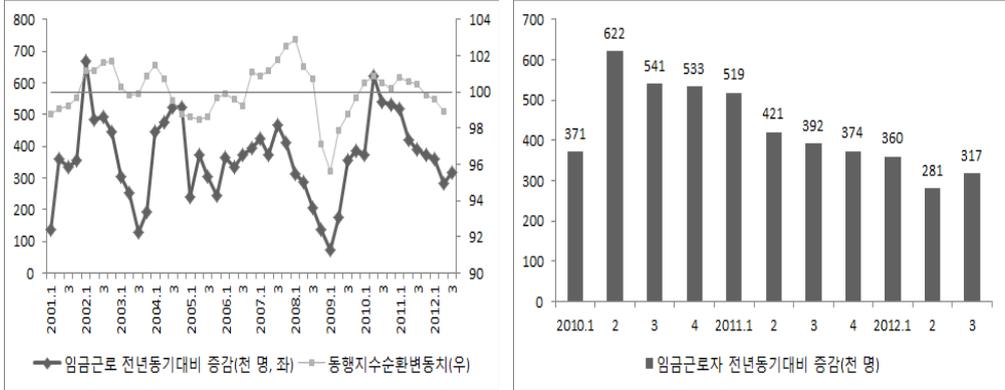
주 : 위 수치에는 각급 학교 재학자가 포함되어 있음. 24세 이하 고졸로 상급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자료만 제한하면, 남성은 2007년 51.4%, 2011년 39.4%, 2012년 43.1%, 여성은 2007년 59.5%, 2011년 45.9%, 2012년 50.0%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25~29세의 경우 남성은 2007년 81.5%, 2011년 82.8%, 2012년 79.2%, 여성은 2007년 53.3%, 2011년 53.6%, 2012년 58.0%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자영업 취업자 증가 지속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그림 3]에 보이는 것처럼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 둔화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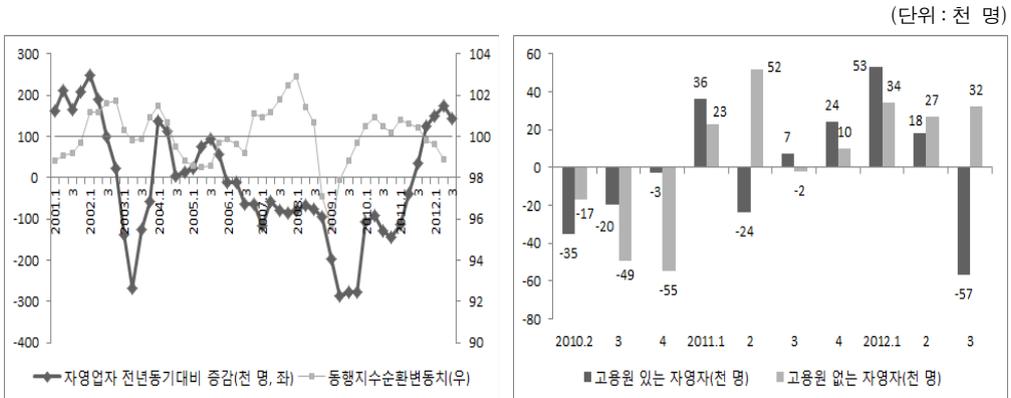
[그림 3] 경기와 임금근로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경기과 취업자 수 괴리의 주원인은 앞서 살펴본 50대 증가와 더불어 2011년 8월 이래 지속된 자영업자 증가에 있다.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추이를 보면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흐름과는 다르게 2011년 3분기 이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좌측 참조). 다만, 계절조정된 수치를 통해 전분기 대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2년 2분기 대비 3분기에 5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우측 참조). 계절조정된 월별 자료로 보더라도 10월까지 5개월 연속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전월대비로는 10월에 고용주, 자영업자 모두 각각 14천 명, 3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11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자영업자 증가국면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2012년 4분기 이후 자영업자 증가폭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4] 경기와 자영업자 증감 추이



주: 우측 그림은 계절조정된 수치로 전분기 대비 증감 수.
 자료: 통계청 KOSIS.

<표 10>에서는 자영업자 취업자 수의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자의 경우 2011년(1~10월)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30천 명), 도매 및 소매업(13천 명)에서 증가폭이 컸고,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건설업(37천 명), 도매 및 소매업(21천 명), 교육서비스업(17천 명), 운수업(13천 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영업자 수의 업종별 변화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자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11. 1~10	2012. 1~10	증감	2011. 1~10	2012. 1~10	증감
농림어광업	51	45	-7	923	923	0
제조업	235	229	-6	215	208	-7
건설업	169	174	5	204	241	37
도매 및 소매업	361	373	13	875	896	21
운수업	30	35	5	576	589	13
숙박 및 음식점업	273	303	30	267	272	6
교육서비스업	61	66	4	244	260	17
기타	318	332	14	792	792	0
전 체	1,499	1,557	58	4,095	4,181	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내수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고용증가세 견인

2012년 3분기까지 2%대(3사분기 1.6%)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1~10월 평균)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 증가하는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가세는 민간부문(454천 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1~10월 평균) 고용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45천 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6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7천 명 감소하여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산업별 고용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자영업자의 증가세로 인한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이 전년동기대비 45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의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은 2012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70천 명 증가에 머물렀으며, 이는 그동안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를 견인했던 도소매업에서의 고용이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더불어 공공부문, 금융보험업에서의 고용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은 중소기업의 도소매업, 음식

〈표 11〉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전 체		282	145	-72	323	415	283	167	-83	312	407	461
산업별	농림어업	-58	-37	-38	-82	-25	-56	-49	-13	-93	-26	-18
	건설업	16	-37	-91	33	-2	21	-37	-92	32	-20	38
	제조업	-42	-52	-126	191	63	-45	-40	-146	173	93	-11
	서비스업	356	260	179	200	386	353	280	162	221	364	455
	도소매업	-38	-41	-32	-20	58	-43	-38	-37	-14	48	61
	운수업	54	1	-1	33	52	60	7	-8	37	49	48
	음식숙박업	-0	-5	-107	-47	-36	1	-4	-103	-51	-39	53
	출판통신등	-17	-7	25	16	35	-18	-8	22	13	34	6
	금융보험업	20	15	-55	42	38	16	22	-65	48	35	0
	전문과학등	21	55	87	40	77	27	44	91	36	80	72
	사업시설등	135	20	-29	78	64	141	22	-24	74	69	23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113	42	48	41	-14	-131	65
	보건업	59	103	156	155	158	54	100	156	153	170	90
개인서비스업	23	-11	-3	3	3	23	-9	-3	2	3	13	
공공 여부	공공	-5	43	191	-71	-9	-12	50	183	-70	-6	7
	민간	287	101	-263	395	424	295	117	-266	382	413	45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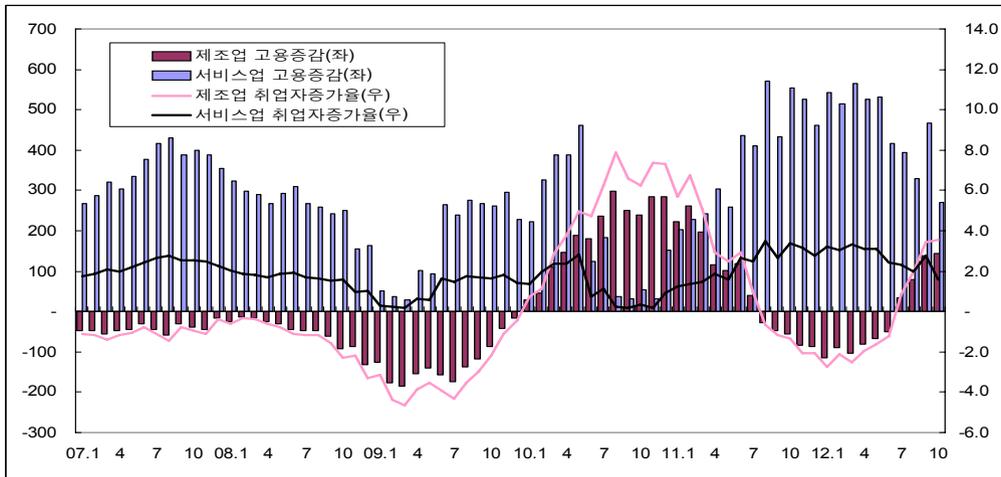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기 전까지 지속되어 오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 없는 성장은 2010년 1월부터 고용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1년 8월부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6월까지 이어졌다. 2012년 7월부터는 상용직 주도의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11년의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조업에서 상용직은 3월부터 증가하고 있었으며, 고용증가세로 전환한 7월 이후에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고용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을 보면 2012년 하반기 들어 서비스업 취업자증가율이 추축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사분기에는 제조업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증가율은 급등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677을 기록하였다.

[그림 5] 제조업·서비스업 고용증감 및 고용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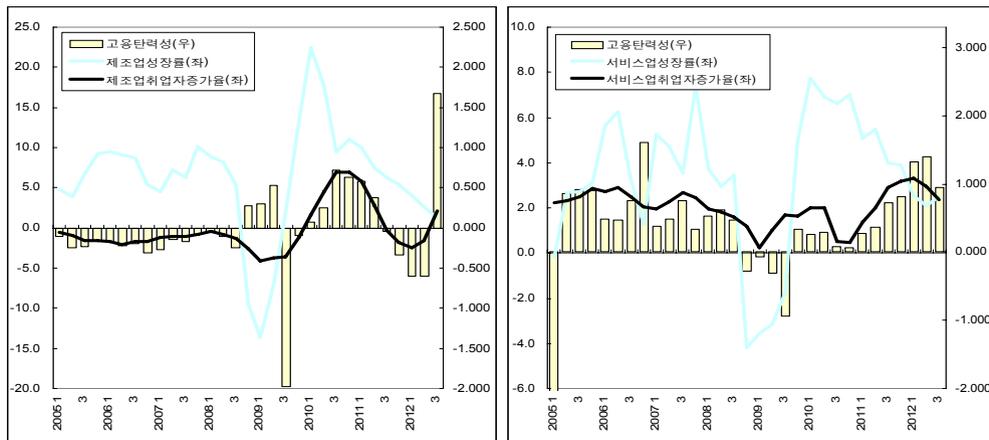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제조업·서비스업 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2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종사상지위별 고용변동을 보면 제조업과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1~10월 평균) 두 산업 모두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 변동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3천 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121천 명 증가하였다. 결국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세는 상용직 증가세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가

〈표 12〉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제 조 업	전 체	-42	-52	-126	191	63	-45	-40	-146	173	93	-11
	임금근로자	-23	-49	-96	162	69	-23	-42	-109	137	97	16
	상용직	60	9	10	184	110	66	12	7	159	136	68
	임시직	-71	-49	-73	4	-37	-71	-47	-86	7	-37	-22
	일용직	-13	-9	-33	-26	-4	-18	-7	-30	-29	-2	-30
	비임금근로자	-19	-3	-30	29	-6	-21	1	-37	36	-4	-2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8	-13	-9	11	2	-6	-11	-15	13	4	-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	12	-18	-4	-3	-4	13	-16	-3	-4	-7
	무급가족종사자	-10	-2	-3	22	-5	-11	-1	-6	25	-4	-14
서 비 스 업	전 체	356	260	179	200	386	353	280	162	221	364	455
	임금근로자	360	281	390	371	379	360	294	363	395	377	340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294	312	329	523	468	360
	임시직	94	-25	116	-46	-57	106	-28	119	-32	-63	52
	일용직	-27	1	-87	-85	-39	-39	10	-86	-95	-28	-72
	비임금근로자	-4	-22	-212	-171	7	-8	-14	-201	-174	-13	11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	4	9	-33	6	-44	8	6	-27	-5	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2	-31	-182	-78	2	55	-26	-171	-81	-9	56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0	-19	4	-35	-66	2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파른 고용증가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12년(1~10월 평균)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비스업 내의 자영업자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업 내 자영업자는 2012년(1~9월 평균) 129천 명 증가하는 등 꾸준히 10만 명 이상 증가해 왔던 것과 달리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4천 명 증가에 불과해 증가폭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3년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의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자영업자의 증가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고용변동을 보면, 여전히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중소제조업, 중소건설업, 30대 연령층에서의 임금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2년(1~10월 평균) 현재 전년동기대비 49천 명 증가하였으며 3분기에만 11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업체규모별·근속연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1~10	2008. 1~10	2009. 1~10	2010. 1~10	2011. 1~10	2012. 1~10
300인 이상	취업자	-55	28	117	-31	37	-68	30	120	-49	49	49
	임금근로자	-55	29	118	-31	37	-68	31	121	-49	49	49
	1년 미만	-29	10	27	-7	29	-34	8	27	-14	41	-32
	1년~2년 미만	-19	-7	11	-14	18	-20	-6	11	-16	19	-1
	2년 이상	-7	26	79	-10	-9	-14	29	83	-19	-11	82
300인 미만	취업자	337	117	-189	354	378	351	137	-203	361	357	412
	임금근로자	475	208	130	548	389	492	228	98	558	394	273
	1년 미만	43	-146	44	188	-158	81	-159	12	227	-164	-27
	1년~2년 미만	164	-29	-69	10	157	170	-20	-70	2	164	-29
	2년 이상	268	383	155	350	389	240	407	156	329	393	3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2013년 고용전망

201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2년보다는 나올 것이지만 여전히 저조한 3.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분간 L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하락속도는 세계경제성장 하락속도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대상국의 기조변화와 향후 긴축재정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의 회복속도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²⁾

2012년 2%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예상 밖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2008년 하반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주어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고, 경기가 회복기조였던 2010년 이후 수출, 내수, 민간소비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은 2012년(1~10월 평균)에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59.1%에서 5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나라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설명해 주는 고용탄력성은 분기별로 각각 0.709, 0.765, 1.287을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은행(2012. 10) 금통위 의사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최소 21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4사분기부터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 하반기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4〉 한국은행 2012년 · 2013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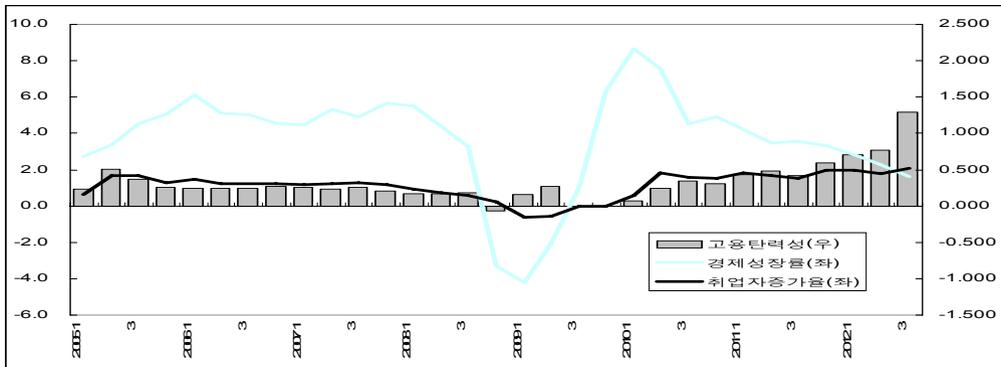
(단위: %, 만 명)

	2011. 12				2012. 4				2012. 7				2012. 10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세계경제성장률	3.5	3.7	3.6	4.2	3.3	3.6	3.4	4.0	3.2	3.3	3.2	3.8	3.2	3.2	3.1	-	-	3.5
경제성장률	3.4	3.8	3.7	4.2	3.0	3.9	3.5	4.2	2.7	3.2	3.0	3.8	2.5	2.2	2.4	2.6	3.7	3.2
민간소비	2.6	3.6	3.2	4.0	1.8	3.8	2.8	4.1	1.4	2.9	2.2	3.5	1.3	2.0	1.7	2.6	3.3	3.0
수출	2.5	7.7	5.2	10.4	3.8	5.8	4.8	9.4	3.0	5.7	4.4	9.0	3.0	3.8	3.4	4.6	10.2	7.5
취업자수	31	26	28	31	42	28	35	32	45	31	38	32	45	41	43	27	37	32
실업률	3.6	3.2	3.4	3.3	3.5	3.2	3.3	3.3	3.5	3.1	3.3	3.2	3.5	3.0	3.3	3.4	3.0	3.2

주: 한국은행 2012년 3/4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1.6%를 기록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그림 7〉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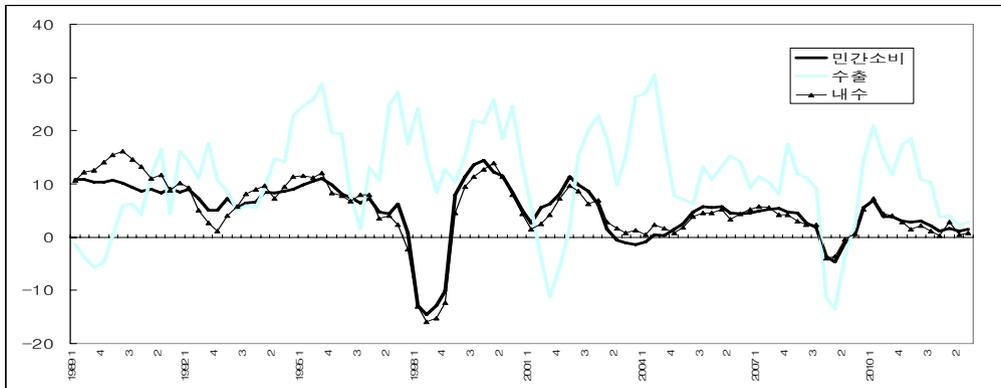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8〉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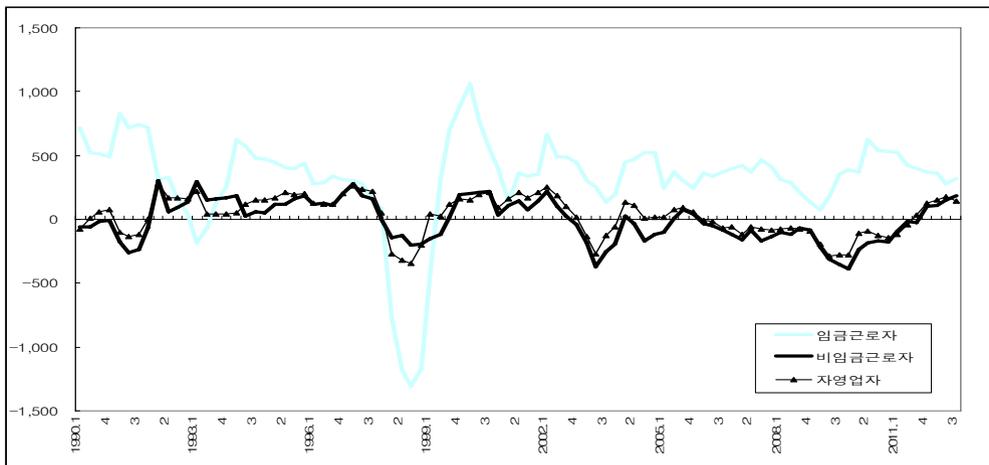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2년 고용증가세의 주요 요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증가세의 지속과 자영업자의 증가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2012년 고용의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자영업자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을 통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세와 이에 따른 고용탄력성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고용증가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들의 고용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2013년 고용의 흐름

[그림 9]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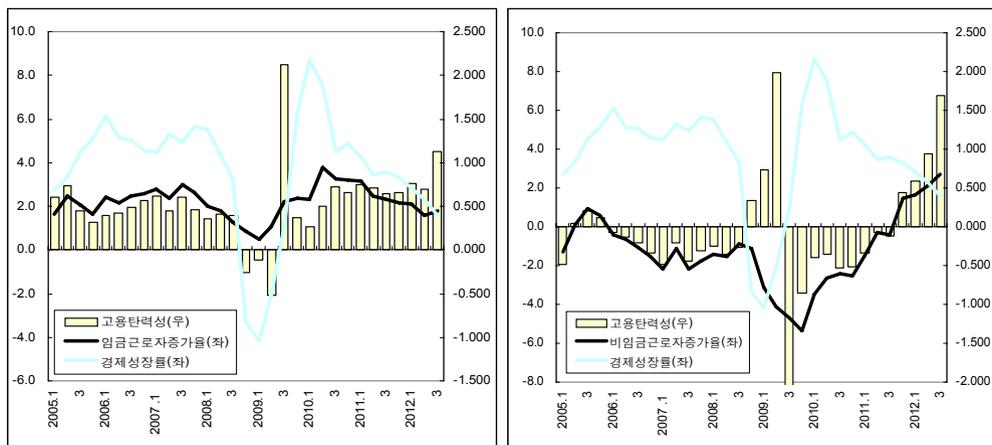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임금·비임금근로자의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13년 고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성장과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증가세의 지속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의 고용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 6월 전월대비 36천 명(계절조정) 감소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 현재 전월대비 38천 명(계절조정)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월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48천 명에 불과해 9월 111천 명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자영업자의 고용이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지속된다면 2012년의 고용호조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L자형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경기순응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은 소폭의 등락을 경험하면서 올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의 고용증가폭이 최근 10월에 크게 둔화되었고 2011년의 자영업 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 및 밝지만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한다면, 자영업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리라 예상된다. 다만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의 고용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비해 조금 회복되더라도 2013년 고용은 2012년 고용증가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2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에도 고용증가세는 지속되어 취업자는 연간 약 3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의 부담 등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 실업자 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지만 고용률은 59.5%로 2012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표 15〉 2013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2			2013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2.5	2.2	2.4	2.6	3.7	3.2
생산가능인구	41,441	41,652	41,564	41,938	42,181	42,060
경제활동인구	25,359	25,720	25,539	25,690	26,095	25,893
경제활동참가율	61.2	61.8	61.4	61.3	61.9	61.6
취업자	24,465	24,933	24,699	24,791	25,273	25,032
(증가율)	1.9	1.9	1.9	1.3	1.4	1.3
(증감수)	450	461	455	326	340	333
실업자	894	787	840	899	823	861
실업률	3.5	3.1	3.3	3.5	3.2	3.3
고용률	59.0	59.9	59.4	59.1	59.9	59.5
비경제활동인구	16,082	15,932	16,025	16,248	16,086	16,167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16〉 경제성장률 · 취업자증가율 ·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1997	361	5.8	1.7	0.300
1998	-1,276	-5.7	-6.0	1.053
1999	353	10.7	1.8	0.165
2000	865	8.8	4.3	0.485
2001	416	4.0	2.0	0.495
2002	597	7.2	2.8	0.387
2003	-30	2.8	-0.1	-0.048
2004	418	4.6	1.9	0.409
2005	299	4.0	1.3	0.335
2006	295	5.2	1.3	0.249
2007	282	5.1	1.2	0.239
2008	144	2.3	0.6	0.267
2009	-71	0.3	-0.3	-0.943
2010	323	6.3	1.4	0.217
2011	415	3.6	1.7	0.479
2012p	455	2.4	1.9	0.782
2013p	333	3.2	1.3	0.421

주: 2012년, 2013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